

# 갑신년 원숭이띠 이야기

강 목  
자유기교가

한국인은 띠를 가지고 삶을 영위한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말이 있듯 인간의 본성 속에는 본래 동물적인 근성이 남아 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띠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만큼 띠는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전통관념 중의 하나로 한국인 각자마다의 심성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이다.

띠의 유래 중에 석가유래설이 있는데, 그것은 석가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모든 동물들을 다 불렀는데 열두 동물만이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석가는 동물들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각 해(年)마다 붙여 주었다. 쥐(子)가 가장 먼저 도착하였고, 다음에 소(丑)가 왔다. 그리고 뒤이어 호랑이(寅), 토끼(卯), 용(辰),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가 각각 도착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12지지가 된 것이라

한다.

새해는 갑신년(甲申年) 원숭이띠의 해이다. 60갑자에서 원숭이해는 임신(壬申), 갑신(甲申), 병신(丙申), 무신(戊申), 경신(庚申) 등 다섯 번에 해당한다. 12지의 아홉 번째 동물인 원숭이(申)는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서 5시, 방향으로는 서남서, 달(月)로는 음력 7월에 해당하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

원숭이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는 동물로 꼽히지만, 너무 사람을 많이 닮은 모습, 간사스러운 흉내 등으로 오히려 재수 없는 동물로 기피한다. 띠를 말할 때 ‘원숭이띠’라고 말하기보다는 ‘잔나비 띠’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같은 속설 때문이다.

원숭이를 옛말에서는 '잔나비'라고 했는데 잔심부름, 잔소리에서와 같이 '잔'은 잘 거나 가늘다는 뜻을 나타낸다. 또 잔꾀, 잔재주에서 자질구레하거나 얄은꾀를 의미하

기도 한다. 그래서 '잔'이란 자질구레한 알은피를 매우 잘 부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잔나비, 즉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로 자식과 부부지간의 극진한 사랑은 사람을 뺀 칠 정도로 애정이 섬세하다. 동양에서는 불교를 믿는 몇몇 민족을 제외하고는, 원숭이를 '재수 없는 동물'로 기피하면서도 사기(邪氣)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원숭이가 건강, 성공, 수호(보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숭이는 유럽·오스트레일리아·북아메리카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분포해 살고 있다. 북으로는 일본 원숭이가 살고 있고, 남으로는 거의 열대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200여종으로 분류된다. 동물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진화된 원숭이류는 몸무게가 약 80g의 애기여우 원숭이에서부터 200kg이 넘는 고릴라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십이지신에 원숭이가 들어 있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원숭이의 생태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한국의 기후가 원숭이의 생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나타난 원숭이는 일본이 세조 12년(1466)에 사신을 보내어 왕에게 원숭이를 선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세조는 이 신기한 동물을 백성들에게 널리 구경시키도록 했으며, 김종서는 희귀한 선물이라 하여 예찬시를 짓기도 하였다.

원숭이가 우리 민족에게 비친 대체적인 모습은 구비전승에서는 피 많고, 재수 있고, 흉내 잘 내는 장난꾸러기로 이야기된다. 그리고 각종 도자기와 문양, 민화에서

원숭이는 숭고한 모성애(母性愛)를 강조하고 장수와 자손의 번창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림 속에서 원숭이는 스님을 보좌하는 모습, 천도복숭아를 들고 있는 장수(長壽)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복숭아는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西遊記)에 등장하는 손오공이 훔쳐 먹은 서왕모의 천도인데, 천년에 한 개 열리며 먹으면 수명이 천년까지 연장되는 신비한 복숭아다.

원숭이를 재수 없는 동물로 인식하여 잔나비로 대칭(代稱)하고, 아침에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러나 불교의 영향, 중국과 일본의 원숭이 풍속의 전래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관념이 희석되었다. 잡귀잡신을 원숭이가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어 큰 건물이나 사찰에 원숭이상을 새겨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비애, 불운, 슬픈 장난 등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토우 원숭이는 부적으로 휴대하거나 부장품 혹은 각종 용기의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상신일(上申日)은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원숭이날이다. 이날은 산에서 나무를 베지 않고 또 나무로 집도 짓지 않았다. 이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은 칼이나 낫·도끼 등을 만지면 손을 베거나 다친다고 해서 삼갔다. 또한 여자 대신 남자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 청소하면 가족이 무병하다고 했다.

원숭이를 꿈에서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원숭이라는 어휘를 금기로 하여 대신 잔나비라고 했다. 다만 흰 원숭이 꿈은 지위가 올라간다고 했다. 원숭

이가 나타내는 시간인 오후 3시에서 5시는 해가 막 지려는 때이다. 그래서 해가지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원숭이띠인 사람은 움직임이 재빠르고 눈치도 빠르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격도 있다.

원숭이 이름의 기원에서와 같이 원숭이띠인 사람은 재주가 많고 총명하다. 독립심이 강하고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발 벗고 나선다. 언제나 튀기를 좋아하며 과장된 언행을 하는 수가 많다. 원숭이띠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속담처럼 너무 자기 재주만 믿고 만용을 부리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다. 비록 어떤 일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고사성어에 나오는 '원후취월(猿猴取月)'

은 원숭이가 물에 빠진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는 것과 같이 사람도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다가 도리어 화를 얻는다는 것을 말한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란 말이 있다. 즉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서로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의 관계를 비유했다. 犬(土)과 猿(金)은 금극토(金剋土)로 상극관계다. 그러므로 개띠와 원숭이띠의 궁합은 당연히 나쁜 것으로 간주된다.

지혜와 잔재주를 겸한 원숭이, 아픈 척, 슬픈 척, 죽은 척 등등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적 표현이 뛰어나서 가령 잔나비 띠는 천부적인 재질인 숫자놀음과 지혜를 잘 이용하는 수학 공학적인 직업인으로 각광을 받는다는 등의 속설이 있다. 갑신년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모두에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안겨주는 풍성한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

